

“열명의 의인” (창세기 18:20-33)

창세기 18 장과 19 장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은 단지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 성에 의인 10 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 의인 10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최소한 수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의인 10 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 이 시대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죄성, 즉 육신의 욕심과 편함, 내 감정과 생각,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10 명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소수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 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10 명을 찾으십니다. 의인 10 명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영인 성령을 모신 우리들이 바로 교회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롯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불로 멸망할 것을 사위들에게 알렸지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의롭고, 나 혼자 봉사하고 나 혼자 성경공부하고 이렇게 산 것입니다.

이 시대 롯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수만명이 죽는데 롯과 같이 혼자 구원받아서야 되겠습니다. 수년간 살면서 영혼하나 구원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겠습니까? 우리는 롯처럼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교회가 롯처럼 되어서는 안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의인, 멸망 당하지 않고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육신의 욕심과 원함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 힘쓰는 이 시대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봄 대청소 - 오늘 예배와 점심 식사 후 교회
봄 대청소가 있습니다.
3. 전교인 대심방 - 3 월부터 전교인 대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4. 고난주간 예배 - 고난주간 예배가 3 월 27 일
(수)-29 (금) 에 있습니다.
5. 부활절 예배 - 부활절 예배는 3 월 31 일에 드립니다.
6. 2024 교회 표어 - 2024 년 교회 표어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로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3/17	3/24	3/31	4/07
대표기도	유영민	손정임	김현옥	심영민
헌화성도	정병철		유경주	구정자
봉사당번	사랑구역	사랑구역	각전도회	믿음구역

행사 및 모임

3 월	봄 대청소	3 월 17 일 (주일)
	고난주간 기도회	3 월 27-29(수-금)
	부활절예배	3 월 31 일 (주일)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5,365.00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Malaysia)
소망구역	조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믿음의 말을 하는 신앙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머니가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으시는 것을 보았지만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부흥회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에서는 “죽겠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불신앙이고, 바르지 않는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깨닫고 결단해서 그 후부터 “힘들어 죽겠다”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 말 대신에 “힘들지만 살겠다” “피곤하지만 살겠다” 라는 말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그런 어머니의 말을 옆에서 들을 때 웬지 저 역시도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까지 죽겠다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죽겠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 말이라도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 ” 라는 말들을 하지만 그 말을 하면 마음이 시원하거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 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죽겠다” 라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 역시 그 마음과 영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분명 그 시간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고 마음이 괴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 시간, 그 상황,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나가야 할 과정이기에 주신 것들입니다. 나를 곤경에 빠트리고, 죽이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 그 상황, 그 순간을 대하면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화난다. 못 참겠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는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말과 마음이 아닌 그 속에서도 “살겠다. 그럴 수 있지. 승리해야지.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과 말,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닌 주위 사람들까지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라는 말 대신 “살겠다. 좋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잘 될거다”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 할 때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는 고백보다 그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든 환경이나 조건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담대함과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